

대림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기쁨의 절기

예수님 가까워 오심 뜻하는 촛불

지난 11월 30일 주일에 예배당 앞쪽에
초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불이 밝혀져 있었다. 바로
대림절 초이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
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전의 4주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림절 초는 보통 진
보라-연보라-분홍색-노란색 또는 흰
색 순으로 불을 켜고, 성탄절에는 흰
색초에 불을 밝힌다. 초의 색깔이 차
츄 밝은 색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
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가까이
오고 계심과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라
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주님의 오
심이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
는 것에 대한 기쁨을 표시한다. 초기
의 대림절 초는 붉은색 2개, 노란색 1
개, 흰색 1개를 사용했는데 붉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肉化)를 상징
하고, 노란색은 영혼과 육신의 생명
력을, 흰색은 신적 영광 또는 예수 그
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의미했다. 그
러다 보라색이 등장한 것은 대림 시
기에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 제의를
입는 데서 기인한 듯하다.



사랑과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대강절, 혹은 강림절은 라
틴어로 'Advantus'라고 하는데, 이
는 '오심', '옴'의 의미이다. 대림절
은 성탄절 4주 전의 주일, 대체로 11
월 말 혹은 12월 초의 토요일 저녁
부터, 성탄절 이브인 12월 24일 저
녁기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가
톨릭의 전례에서는 "대림절은 이중
의 성질을 지닌다. 그것은 우선 하
느님 아드님의 지상적 탄생을 기념

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며 동시에 그
기념을 통해 종말에 있어서의 재림
을 대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그
런 이유로 인해 대림절은 사랑과 기
쁨에 감싸인 기다림의 기간임이 분
명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한다. 이
는 대림절이 갖고 있는 신학적 의
미를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사
랑과 기쁨을 통한 기다림의 절기인
것이다. 이것이 통회나 회심이 강
조되는 사순절과 다른 점이다.

주님의교회 여러 행사들

대림절의 각 주일도 이와 같이 각각
의 의미가 있다. 첫 주일은 오실 구
세주를 깨어서 기다리는 자세로 맞
고, 둘째 주일은 구세주 오심에 대
비하여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며,
셋째 주일은 구세주가 오실 날이
가까워졌으니 기뻐하라고 권하며,
넷째 주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임
을 밝히는 것이다.

올해 대림절과 성탄을 맞아 주님
의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
뻐하며,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과 활동이 펼쳐진다.
12월 16일에는 주님의교회 대예배
당에서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및
다른 여러 교회와 함께 주최하는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제3회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가 펼쳐지며, 교
육부서에서도 12월 21일 4부의 성
탄 발표 준비에 한창이다.

함즐함울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 중심 교육

2014 제3회 미래목회세미나 열려

국제교육선교센터가 주최하는 제
3회 미래목회세미나가 "하나님 나
라를 꿈꾸는 청소년 교육",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기초한 교육 선교"
라는 주제로 2014년 11월 17일(월)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양육하는 교
육선교를 위해 '국제교육센터'는
미래목회세미나와 한인선교사를
위한 계속 교육을 해오고 있다. 특
히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미래목
회세미나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 교

육선교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하나
님 나라 중심의 교육선교 방향성을
제시하며, 다가오는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대한 주제와 이슈들을 다루
고 있다.

2012년 11월 첫 회로 문을 열어
올 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세미
나에는 전국 각 지역의 목회자들과
신학생, 청소년 사역자, 주일학
교 교사 및 주님의교회 성도들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의 신
앙과 교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박

원호 담임목사의 주제 강의에 이어
오전 시간에는 사역원별로 최봉도
목사(교육선교), 조광민 목사(예수
친구사역), 홍성욱 목사(12단계 성
경공부)의 강의를 있었다. 오후에
는 청소년사역원에서 문은영 목사
와 함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청소
년 교육'에 대한 강의 및 2015년 교
육정책과 청소년 사역 노하우들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주님의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
명들을 한국 교회와 함께 나누고

자 마련된 이 자리를 통해, 사역 현
장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며 애쓰는 많은 사역자들
이 조금이나마 다시 한 번 도전받
고 힘을 얻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한
다. 또한 주님의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
를 꿈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과 사역들에 지속적으로 기여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정민 전도사

2014년 특집 I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올해의 한자 ‘화(和)’

벌써 12월이다. 세월호의 비극부터 시작, 많은 일이 있었던 2014년도 시나브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간다. 함글함글 팀에서는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서,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한자인 ‘화’를 올해의 한자로 뽑았다.

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번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누가복음 19:42

2014년 주님의교회 표어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이다.

평화는 하나님나라를 상징하는 단어 중의 하나이며 이 땅 온 인류가 염원하는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화를 해치는 일들이 올 해에도 수없이 일어나 큰 실망만 안겨 주었다.

사이비 교주와 맹신하는 신도들과 끝없는 물질의 탐욕과 무책임의

결정체가 빚어낸 세월호 참사는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인권유린의 차원을 넘어선지 오래 되었고 전쟁위협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중동정세 또한 알 카에다의 몰락 후 이슬람 극단적 테러분자 IS가 등장하여 세계평화를 깨뜨리고 있다.

인간관계도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이 증폭되고 음에 대한 갑의 횡포가 심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평화의 겨자씨를 심고 가꾸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교회 성도로서 평화의 도구적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거창한 세계평화를 논하기 전에 성도 상호간 존경과 약자에 대한 작은 배려부터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교회로 변화시키고, 사회로 확산시키며, 마침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

대한 겨자씨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올해 평화의 겨자씨를 심었으니 물을 주고 가꿈으로써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평화의 거목으로 키우는 일만 남았다.

“네 처음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두 평화의 도구가 되기로 굳게 다짐해본다.

살롬, 성경에서의 ‘화(和)’

성경에서는 평화를 단순한 전쟁의 반대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완전하게 자유롭고 만족스런 상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이 평화는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참된 평화는 종말에 메시야나라에서 온전하게 완성된다. 평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살롬’은 평안, 평강, 화평, 화목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즉 한자의 ‘화(和)’에 비견될 수 있다.

‘화’를 문자적으로 풀어보면, ‘곡식이나 밥을 상징하는’ 禾(벼 화)에 ‘먹다, 말 하다는 뜻을 지닌’ 口(입 구)를 결합하여 和(화목할 화)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양팔저울의 균형 상태를 상형화한’ 平(평평할 평)이 붙어 ‘평화’를 이룬다. 따라서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침이 없는 저울을 사용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니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라는 신명기 25장 13절 말씀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 “벼를 수확하여 함께 먹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볼 때 “함께 먹을 때며 즐거워 한다”는 말씀과 일치하니, 경제가 평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이들이 먹을 것을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화(和)’, 바로 올해의 한자로 뽑힌 까닭이다.

노대홍 안수집사 /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67

月曆(월력)에 의한 節氣(절기) 중 安息日(안식일), 安息年(안식년)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와 안식일인 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16:2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安息日(안식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7일째 안식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 매주 금요일 해질 때 시작하여 토요일 해지기전까지 지켰다.

② 安息年(안식년): 1년 동안 耕作(경작)을 멈추고 스스로 생겨난 所産物(소산물)로 가난한자들을 救

濟(구제)하며 들짐승의 식물로 삼았던 절기. 채무자의 빚은 1년간 면제해 주기도 하였다. 7년을 週期(주기)로 지켰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安(편안할 안): “집이나 지붕”을 뜻하는 宀(집 면, 갓머리)와 ‘여자의 총칭’인 女(계집 녀)의 合字(합자)로 ‘집안 일에만 전념하는 여자가 편안하다’ 또는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온 가족이 편안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息(숨쉴 식, 쉴 식): ‘코 또는 나’를 상징하는 自(스스로 자)와 ‘심장 또는 가슴’의 뜻이 있는 心(마음 심)의 합자로 ‘코로 가슴 깊숙이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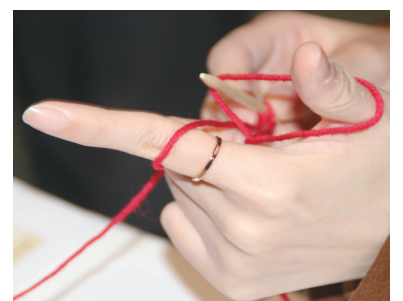
기를 들며 마시고 숨 쉰다. 이처럼 숨을 고르며 편히 쉰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日(해 일, 날 일): ‘둥근 태양 속에 三足鳥(삼족오)가 산다는 북방민족의 전설을 상형화’한 日(모양이 변하여 ‘삼족의 금 까마귀가 산다는 전설의 둥글고 밝은 천체가 해다. 이러한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낮이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年(해 년): ‘곡식의 대명사’ 禾(벼 화)와 ‘뒤엉키다’의 뜻이 있는 𠂔(어그러질 천)을 합쳐 만들어진 年(양이 변하여 ‘벼가 익어 이삭이 뒤엉키는 단위기간이 한 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3



멀리 아프리카의 아기들부터 아픈 몸 가누지 못하는 이웃 어르신 머리 덮어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 사랑 같은 털모자, 그리고 코바늘 하나와, 섬기는 두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 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로템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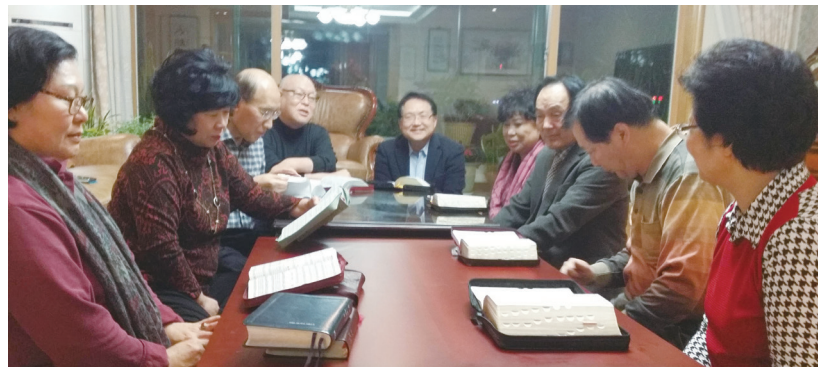
겨자씨 금요 예배 탐방기

지난 11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기자는 1교구 12겨자씨가 금요 저녁예배로 모이는 송파구 방이동 이형구 안수집사가정을 찾았다. 이 겨자씨는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과 친교와 나눔이 활발하다는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둘러보니 벌써 일곱 가정 열네 식구들의 유쾌한 답사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가운데 겨자씨장인 방정길 피택 안수집사의 묵도로 예배가 시작되었다. 먼저 자기점검사항, 마음열기, 찬양, 김미 집사의 기도 에 이어 지난 주일 예배 설교말씀인 “예수 앞에 선 사람들”의 열왕기 상 3:25-28절 및 로마서 2:1-5절과 ‘말씀 만나기’ 교독에 이어 ‘말씀 나누기’의 순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말씀나누기’ 첫 번 질문에 부정희 안수집사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으로부터 시작하여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서로 서로의 수준 높은 의견들이 빚발치면서 토론에 활기가 불고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 여기가 바로 ‘장신대 신대원 방이분교’는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만큼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이 저절로 정리되고 깨달아지는 ‘소그룹토론’이었다. ‘함께 기도하기’를 끝으로 40여 분 간의 예배가 마무리되자 이제 다과와 친교의 시간이 되었다.

그 동안 원거리인 여주에서 금요일 밤 겨자씨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이우풍 피택 안수집사에게 기자가, “아니, 무엇이 좋아서



그 먼 거리에서 밤에 이렇게 올라 오세요?”라고 물으니, “나는 겨자씨 예배가 너무 좋아 늘 기다려집니다. 교회에서보다 겨자씨에서 성경을 더 알게 됩니다. 겨자씨 식구들이 친 동기간 이상으로 좋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12겨자씨 시작 7년 간 겨자씨장으로 섬겨 온 홍영희, 이형구, 부정희 집사에 이어 남양주 거주 방정길 집사와 겨자씨 가족 간의 단합과 헌신이 빚어 낸 아름다운 예배 모습은 초대교회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들게 하며, 2015년 겨자씨장으로 헌신할 현상철 안수집사로 이어질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대견하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말 송구영신예배의 밤에는 왕진무 집사가 가정에서 먼저 감사 모임을 갖는다는 광고를 끝으로 이우풍 집사가 선물로 가져온 여주 특산 도토리 묵 가루 봉지와 들깨 한 자루씩을 받아 들며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왕진무 집사

영어예배팀의 추수감사절



11월 23일 영어예배팀에서는 미국

의 절기에 맞추어 추수감사절 행사를 가졌다. 영어예배팀, 한국어학교팀, 어린이 영어예배팀을 초청하면서 작년 수준에 맞추어 70여명 분을 준비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어학교 외국인들과 어린이 영어예배팀 부모님 등 12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

루었다.

다행히 4마리나 준비한 칠면조 덕분에 음식은 모자라지 않게 나눌 수 있었다. 음식을 나눈 후에는 존 슈나이더 목사가 준비한 게임과 윷놀이로 즐거운 뒤풀이 시간도 가졌다.

영어예배 장소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제3집회실에서 소예배실로 바

뀌었고, 시간도 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되었다. 예배를 드린 후에도 친교 시간과 영어 성경공부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영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성도, 청년, 중고등 학생들 누구나 함께 영어로 예배드리고 나눌 수 있다.

함글함글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9

연지동 시대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는 이조개국(李朝開國) 오백사년 시월삼일(五百四年十月三日)에 야소교(耶蘇敎)북장로파(北長老派) 선교부인(宣敎婦人) 또티씨(氏)가 설립(設立)하야 연동여학교(蓮洞女學校)라 칭(稱)하였스니 기후 융희원년(其後 隆熙元年)에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라 개칭(改稱)하야 동삼년팔월십일일(同三年八月十一日)에 사립정신여학교(私立貞信女學校)의인가(認可)를받았다(“정신여학교의 沿革, 金援根” 「朝鮮日報」 1922년 1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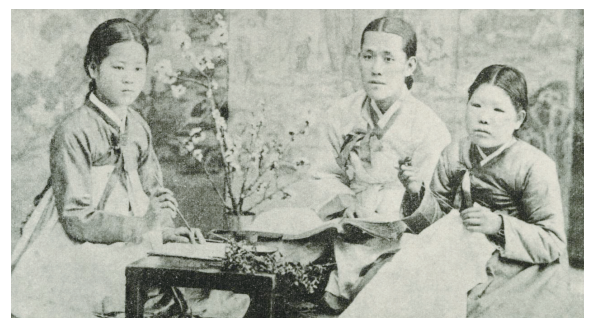
1895년 10월 20일 장로회 여학교는 연지동으로 이전하며 학교 이름을 연동여학교(蓮洞女學校)로 개명한다. 1908년의 사립학교령에 따라 1909년 수업연한 4년의 정신여학교(貞信女學校)로 인가를 받는다.

이후 일제는 정신여학교의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려고 한다. 위 기사는 일제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을 단호히 지키려는 기고문이다. 작성은 1903년부터 근무해온 교사 김원근이다.

정신여학교의 첫 한국인 교사는

1896년부터 근무한 신마리아 선생이다. 그녀에 대해 제3대교장 도티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지난 겨울에 여성 사역을 위해 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바로 신여사입니다. 그녀는 일관성 있는 삶, 점잖은 태도, 꼼꼼함, 분별력, 능숙한 조력으로 학생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학교 업무에 매우 소중합니다.”(1896.1.18. 도티)



장로회 여학교 처음의 한국인 교사 신마리아

정신여학교는 미북장로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학교를 시작하였고, 그 전개 과정에서 신마리아와 김원근 같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사들이 합류함으로써 기독교 신앙과 민족성이 어우러진 교육을 연연히 선포해왔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북한 결핵 어린이 돕기

제3회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



‘생명을 살리는 일 만 큼 값진 것은 없다.’는 취지로,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주님의교회, 덕수교회, 승리교회,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주최하는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가 12월 16일 주님의교회 대예배당에서 펼쳐진다.

한국방송 윤인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생명 나눔의 밤 콘서트에는 승리교회의 생명열매 어린이 찬양대(지휘 오선)과 마리아 여성 찬양대(지휘 이미

자), 덕수교회의 혼성듀엣, 덕수교회 찬양대(지휘 오영진), 거룩한 빛 광성교회 찬양대(지휘 박영애), 주님의교회 미쇼데이 찬양대(지휘 성기훈) 등이 공연하며, 가수 구창모와 탤런트 고아라가 특별출연한다. 마지막은 온 교회 연합 찬양으로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공연될 예정이다.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의 북한어린이결핵퇴치본부에서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협력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결핵제로운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주변에 확산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약 천명의 관객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공연의 협찬사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북한결핵어린이 돕기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함글함글

2014 새생명축제



2014년 새생명축제 위해 전도대상자를 작성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교구별로 지하철 전도가 계속되고 있다. 12월 14일 3부 예배 때에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환영식에 참여함으로써 축제가 마감된다.

함글함글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 단신

세번째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



2014년 “사랑의털모자” 3차 전시회가 2014년 11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1차와 2차에서는 1200여 명(뜨개질 포함)이 교우님들의 참여로 18,392,000의 후원금이 모여 이 후원금을 UNICEF와 기아대책을 통하여 결식아동 20명에게 지원해 주었으며, 4000여개의 털모자를 국내외 영유아, 중증환자, 호스피스 병원 환자와 케냐, 헝가리, 키르기스스탄과 세이브더칠드런, 국내 독거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비록 작은 털모자 하나이지만 신생아 한명을 살리고 호스피스 병동에 환자분 한분에게 마지막 귀한 선물이 된다.

함글함글

신규사역자 사역팀장 만남 모임



사역박람회에 신청한 사역자와 사역팀장 모임이 2014년 11월 30일 오후 1시 1층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2014년 사역박람회는 11월 4주 동안 주일마다 사역팀별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총 37개 부서 113명이 신청했다. 이번 모임에서 신규신청자와 사역팀장과의 대화를 통해 사역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함글함글

2014년 안수집사회 정기 총회



11월 30일, 2014년 안수집사회 정기총회가 안수집사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 식당에서 열렸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설교 후 김재중 집사(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의 순환기 질환에 대한 건강 강좌가 있었고, 이후 2014년 안수집사회 경과보고,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신입회장단 및 감사 선출이 진행되었다. 2015년의 안수집사회를 섬기게 될 회장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익훈 안수집사 **총무:** 임익수 안수집사 **회계:** 김달원 안수집사
감사: 강석인 안수집사, 김복수 안수집사
고문: 임근원 안수집사, 노대홍 안수집사

교회사역일정

12. 7(주): 성찬주일

12. 8(월): 정기당회

12. 10(수): 겨자씨 인도자 종강

12. 14(주): 새생명축제(3부예배)

12. 16(화): 생명나눔의 밤 콘서트

12. 21(주): 가족과 함께하는 성탄예배

12. 25(목): 성탄절, 유아세례

12. 31(수): 송구영신예배